

베이커리부터 족발까지... 한주방에 사장님은 140명

Q 르포 | 공유주방 '위룩 사직점' 가보니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보건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위생모와 위생 신발 등도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 그리고 에어살을 통해 출입합니다. 공유주방인 만큼 위생 문제를 철저히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100평 규모의 공유주방 ‘오픈키친’을 보여주며 위룩 사직점의 한예슬 매니저는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식자재도 트럭에서 바로 출고 실로 따로 들어간다. 한 주방을 여러 업체가 공유하는 만큼 유통 등 다른 문제가 없도록 내부에 매니저가 상주하며 요리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위룩 사직점은 민간 공유주방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고 지난 1일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위룩의 오픈키친을 이용하면 한 개의 주방에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규제에 의해 1개 사업장에 1개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공유주방은 주로 요식업 연구·개발(R&D) 공간으로 사용됐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영업신고와 제품 B2B 유통까지 가능해졌다. 위룩

민간 최초 규제샌드박스 통과 주방 한 곳에 여러사업자 등록

사업자간 동선·위생관리 철저 판매·품평회 등 플랫폼 역할도 10월 식품제조형 공유주방 계획



서울 중구 사직동에 위치한 위룩 사직점은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됐다.



위룩 사직점 공유주방인 오픈키친은 여러 사업자가 한 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배한님 기자

은 오는 10월 송파구에 본격적으로 밀키트 등 식품 제조형 공유주방도 연다.

오픈키친은 100평 규모의 공유주방을 시간 단위로 필요한 작업대 수만큼 예약해 사용한다. 약 140팀이 이곳 사직점에 회원으로 등록해 오픈키친을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잼이나 페스토, 빵처럼 포장하기 쉬운 것부터 한식이나 족발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만들어진다.

기본적인 칼·도마 등 조리기구부터 컨베이어 오븐, 베이커리 오븐, 발효기, 반죽기, 튀김기, 가스 그릴, 제빙기 등 개인이 구비하기 어려운 기구도 준비돼 있다. 오븐이 있는 곳은 베이킹존으로,

화구 쪽은 한식이나 양식 존으로 사용된다. 냉장·냉동 창고도 월 단위로 빌릴 수 있다. 사용 시간대와 정해져있어 동선이 겹치지 않게 매니저가 상시 관리한다. 내부 쓰레기 정리 등도 매니저가 관리한다.

연회비 1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내면 시간당 1만5000원에 위룩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 장기간 사용하는 회원을 위해 월간권도 있다.

4개의 프라이빗 키친도 있다. 4평부터 13평까지 각기 다른 크기의 개별주방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위룩 사직점 위치한 카페 아르크도 이 프라이빗

키친에 입주해 있다.

현재 약 30팀이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위룩 마켓 등을 통해 판매 중이다. 위룩 사직점 지하1층에 위치한 그로서리 라운지에서도 공유주방에서 나온 제품을 팔고 있다. 베이킹 제품의 경우 내부 품평회를 통해 카페 아르크 메뉴에 올라가기도 한다.

위룩은 단순히 주방을 공유해줄 뿐만 아니라 요식업 창업자들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6명의 커뮤니티매니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창업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메뉴의 연구·개발부터 원가 관리까지 돕는 ‘메뉴토킹’, 음식을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 수 있는 ‘푸드스타일링’, ‘창업가이드’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에서 요식업 관련 연구·개발을 하거나 사업 관련 사무업무도 볼 수 있다. 오픈 데스크 25석, 개인실 20석으로 총 45명이 들어간다. 현재 유한양행 연구팀도 공유오피스에 입주해 있다.

위룩 사직점 한예슬 매니저는 “공유 샌드박스를 통과하고 확실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었던 문들의 문의가 많다”며 “하루 2번 진행되는 투어 신청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인생 이모작’ 꿈꾸는 시니어 모여라

유한김벌리 ‘시니어 산촌학교’ 모집

유한김벌리는 시니어 산촌학교 7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니어 산촌학교는 자연친화적인 도시 생활이나 귀·산촌을 통한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유한김벌리와 생명숲, 국립산림과학원이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7기 시니어산촌학교는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한다. 생태, 산림경영, 대안적 산촌의

삶 등 분야별 전문 교수진의 지도 속에 산촌의 실제 생활과 귀·산촌 과정을 미리 경험하고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도시에서의 대안적인 삶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참가 희망자는 이달 11일까지 생명숲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14일 발표한다. 7기 시니어 산촌학교 모집 인원은 총 40명이며 유한김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기금 후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개인 부담금은 총 60만원의 교육비 중 10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日규제 中 中小 지원 등에 5580억 쏟아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 재해피해 기업에 580억 등 추가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무역규제 지원금을 포함한 5580억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일본 무역 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원, 시설 투자기업에 3000억원, 일자리 창출 기업에 1000억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 애로 기업에 580억원 등 총 558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이번 정책자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편성됐다. 기존에 책정된 2019년 중소기업 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책자금은 금리 2.0~2.8% 수준에 3조 6700억원이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 규제 대응하기 위함을 고려해 관련 기업에 1000억원

규모로 필요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시설을 투자하고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며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의 융자조건도 개선한다.

일본의 무역 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기업당 융자 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신성장 유망자금 융자 한도는 60억원이었다. 아울러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융자 한도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개선한다. 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올해부터 지정될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사에도 필요자금을 대규모 투입할 수 있다. /배한님 기자

유진그룹 에이스홈센터 신입·경력 채용

MD·건자재영업·매장운영 등

유진그룹은 계열사인 이에이치씨가 운영 중인 홈인테리어&건축자재 전문 브랜드 에이스 홈센터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MD, 건자재영업, 개발, 교육, 재경, 물류, 매장운영으로 채용 규모는 유동적이다.

지원자격은 MD, 건자재영업, 개발은 초대졸 이상, 교육, 재경은 4년제 대졸 이상, 매장운영은 고졸 이상, 물류는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신입과 경력사원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동종업계 근무자 및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영어, 중국어) 가능자는 우대한다. /김승호 기자

매장운영 분야에서는 건축자재, 가구, 페인트, 인테리어 등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55세 이상의 프로사원도 모집한다. 에이스 홈센터는 각 분야에서 다년간 전문지식을 갖춘 프로사원들을 채용해 재취업을 적극 돕고 있다. 프로사원들은 각 매장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돕는 업무를 하게 된다.

입사지원은 오는 15일까지 유진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심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순이다. 전형 단계별 합격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부품·소재부문 10년 내 국산화 가능”

>> 1면 ‘R&D 멈추는 순간’서 계속

일본, 독일, 중국 등 해외 거래가 늘면서 ‘그들이 부럽다’는 경험도 여러 번 했다.

“일본 기업과 납품 거래를 위해 견적서가 오가던 때였다. 담당자가 부르더니 견적서를 다시 보내라고 요청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알고보니 견적서에 개발비와 인건비가 빠졌으니 그것까지 반영해 다시 제출하라는 이야기였다. 감동이였다. 납품이 확정되고 나니 제품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대금 10만 달러가 통장에 바로 꽂히더라. 두번 감동

을 받았다.”

200만원 여치를 팔고 3년을 기다려서야 납품 기회를 주는 한국 기업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놀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도 할 말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관계가 완벽하게 정착해야 부품·소재 등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대기업은 납품을 전제로 하청기업들이 R&D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품단가를 제 때 줘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R&D를

위한 국책과제도 1~2년이 아닌 10년 정도로 기간을 늘려야한다. 그만큼 기술 독립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원은 창업 9년 만에 주력 제품인 스테이지의 국산화율을 95%까지 달성했다. 100%까지는 시간문제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은 우리 대기업 때문에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최고의 기술을 구현하기까지는 30~4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훌륭한 인재가 많은 우리는 10년 정도면 충분히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